

중학생의 성 의식과 성 행동에 관한 연구

나명숙 · 박영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국교원대학교*

A Study on Sexual Awareness and Sexual Behavior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Na, Myeong-suk · Park, Young-Soo*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 gender, grade and school type of middle school students made any differences to their sexual awareness and sexual behaviors in an effort to lay the groundwork for providing more efficient sex education.

The research questions were posed as follows :

First, what is the sexual aware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Second, what are the sexual behavi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Third, are their gender, school year and school type related to their sexual awareness and behavior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976 middle school students from Gyeonggi province.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with questionnaires prepared by this researcher based on earlier studies to suit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10.0 program. The frequency analysis, χ^2 test and correlational analysis were implemented, and basic statistical data were obtained.

The conclusions were as follows :

First, regarding their sexual awareness, the largest group of them agreed that one must report in case of being raped(4.36), and the smallest number of them thought that one might have a sexual relationship with a person other than his or her spouse after marriage (1.56).

Second, as for experience of indecent materials, part of sexual behaviors, 67.4 percent had ever contacted such materials. The most common medium through which they contacted them was the Internet (56.5%).

The above-mentioned findings suggested that the sexual awareness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wasn't influenced by gender or school type. But that varied with grade, as the third graders had the best sexual consciousness. Their sexual behavior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The boy students contacted more indecent materials, and their experience of such materials varied with grade, since the third graders contacted the most obscene materials. And that also varied with school type, and the non-engineering students contacted more obscene materials. As for sexual drives, their masturbation experience was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grade and school type. The number of the boys who practiced masturbation was four-fold larger than that of the girls, and the second graders had more such experience. By school type, the non-engineering students practiced more masturbation,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gap between their kissing, caressing and dating experience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육체적 성숙, 그 중에서도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으로 성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안, 고독, 긴장, 고민 등의 특징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성 역할에 대한 자아의식이 발달한다. 특히 제 2차 성징이 나타나 신체적으로 성숙한 사춘기 청소년에게 있어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성 문제를 빼놓고서는 이 시기의 청소년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적 발달과 성 의식을 갖추는 것은 그들의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발달 과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성 가치관의 혼란이 고조되어 청소년들에게 있어 잘못된 성 의식이 올바른 성 의식 및 가치관인 것처럼 청소년 사이에서 확립되고 있고 최근 청소년의 성장·발달 속도는 종전 보다 현저하게 빨라져서 남성의 경우 11세 내지 13세, 여성의 경우 8세 내지 11세 사이에 70%내외의 청소년이 사춘기에 진입하는 바, 사전 성 교육 부재로 인한 이들의 사춘기 부적응 현상이 급증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성적으로 상당히 개방된 상황에 있고 청소년들의 성 성숙의 조기화 경향이 나타나 10대의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성교제 율도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이성교제 방법이나 교제정도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달리 건전한 교제의 한계를 넘어선 이성교제 문제가 새로운 청소년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성인들이 종래와 같이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외면 할 수 없는 절박한 사회적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가정과 학교에서 인간 형성에서의 과정을 통해 성에 관한 인간적인 삶의 방식을 청소년들에게 키워주는 적극적인 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본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 의식을 확립시키려면, 청소년들에 대한 성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성 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성 태도, 인식, 가치관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성 교육에 있어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성 교육이란 원래 가정에서 어린 시절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우리 사회와 같이 가정에서 친지간의 성 문제를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전인교육 차원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 교육을 실시하는 일이 바람직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성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초반부터 각급 학교에서 부분적으로 성 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그간 학교가 성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의 성적 적응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성 교육에 대한 계획도 없이 일부학교에서 양호교사나 일부교과에서 주로 생물학적 측면에서 피상적인 성 교육이 이루어져 오늘날까지 학교 성 교육이 정착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형편이다. 과거에 비해 남중과 여중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남·녀공학 중학교의 수가 매우 증가하고 있고, 새로 개교하는 학교의 경우 남·녀공학을 지향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임을 감안하고 동료와 집단, 학교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공학과 비 공학이라는 환경의 차이가 학생들의 성 정체감, 성 의식, 성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교에서의 건전한 성 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성 교육 계획과 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중학생이 평소애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 의식과 성 행동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2. 연구의 문제

이 연구는 중학생의 성 의식 및 성 행동의 실태와 성 행동과 성 의식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그들이 겪고 바라는 것에 대한 적합하고 효과적인 성 교육 방향과 방법을 마련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가. 중학생의 성 의식의 정도는 어떠한가?
- 나. 중학생의 성 행동의 실태는 어떠한가?
- 다. 성별, 학년별, 학교유형에 따른 성 의식과 성 행동은 관련성이 있는가?

3. 연구의 제한점

- 가. 이 연구의 조사 대상 지역을 우리나라 전

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집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구리시내 3개의 학교를 임의 표집 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전국 중학교 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 학생들의 구체적인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면접 및 관찰에 의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나, 이 연구는 설문 조사에만 의존하게 됨으로 신뢰성에 제한이 있다.

4. 용어의 정의

가. 성 의식

성 의식이란 성에 대한 관념이나 태도로 성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상태를 말한다. 성에 대한 관념이나 태도는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성격적 바탕 위에서 결정되는데 그 요인은 시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성 의식의 평균을 성 의식 지수라고 하였고 성 의식 지수를 다시 낮고 높음으로 분류하였다.

나. 성 행동

성 행동 경험은 사회의 성 문화와 가치 기준에 따라 인지된 성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들이 남·녀 관계나 생활에서 성 자극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반응 정도의 총칭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성 행동과 관련하여 음란물 접촉, 이성교제 경험, 성 충동, 자위행위, 키스·애무, 성 경험(성교행위) 유무로 보았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기도 구리시에 소재한 중학교 3개교(남중, 여중, 남·녀공학) 1·2·3학년 976명(남중 : 335명, 여중 : 324명, 남·녀공학

: 317명)으로 설문지 현황은 <표 II-1>과 같다.

먼저 학년별 조사자 수를 살펴보면 1학년 331명(34.3%), 2학년 332명(34.0%) 3학년 313명(32.1%)이 되어 거의 같은 비율이 조사되어 학년에 따른 편기(bias)를 없었다.

성별 조사자수도 남중 516명(52.9%), 여중 480명(47.1%)으로 거의 같은 비율로 편기를 없었다.

학교유형별 및 학년별 조사자 수도 거의 같은 비율로 조사되어 편기를 없었다.

학교유형별 조사자 수도 남중 335명(34.3%), 여중 324명(32.5%) 그리고 남·녀 공학 317명(32.5%)가 되어 거의 같은 비율로 조사되어 편기를 없었다.

2. 연구의 절차 및 기간

이 연구의 기간은 2002. 3. 10~2003. 10. 20까지로 구체적 내용은 <표 II-2>와 같다.

3. 연구도구 및 조사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중학생의 '성 의

식' 및 '성 행동'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로서, 선행연구 자료들 오현미(2002), 이해연(2002), 구분영(2002)의 설문문항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통해서 설문내용의 적합도를 검토한 후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여 조사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가. 사전 조사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설문지의 사전조사는 구리시 G중학교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의 목적은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는데 1차 목적을 두고 설문지 응답시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지적하도록 한 후, 수정 및 보완하여 설문지 작성시 반영하였다.

나. 본 조사

이 조사는 2003. 3. 20~2003. 4. 25까지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실시상의 주의점을 알려주고 기재요령을 설명한 후, 학생들이 직접 응답케 하는 자기 기입법(Self-recording)을 사용하였다.

표 II-1. 연구의 대상자

단위(명)

대 상	학교 유형			성 별		계	
	남중	여중	남녀공학	남	여		
중학교	1년	107	116	108	168	163	331
	2년	116	106	110	180	152	332
	3년	112	102	99	168	145	313
계	335	324	317	516	460	976	

표 II-2. 연구의 내용 및 기간

순 서	연구 절차	연구 기간
1	연구계획 및 자료수집	2002. 3. 10 ~ 2002. 4. 30
2	설문지 작성	2002. 5. 1 ~ 2002. 6. 30
3	사전조사 실시	2002. 9. 1 ~ 2002. 10. 30
4	설문지 검토 및 수정	2002. 12. 10 ~ 2003. 2. 5
5	설문지 배부 및 회수	2003. 3. 20 ~ 2003. 4. 25
6	자료처리 및 분석	2003. 5. 1 ~ 2003. 7. 30
7	논문 작성	2003. 8. 1 ~ 2003. 10. 20

다. 설문지의 구성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모두 3개 영역으로 성 의식에 관한 문항 10문항, 성 행동에 관한 문항 22문항, 대상자의 개인적 사항 7문항으로 구성된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표 II-3>와 같다.

4. 자료처리 방법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검색과정을 거친 후 SPSS 10.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으로 하였다.
- 나. 중학생의 성 의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

여 기초통계분석으로 하였다.

- 다. 중학생의 성 행동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으로 하였다.
- 라. 성별, 학년별, 학교유형에 따른 중학생의 성 의식과 성 행동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내용에 따라 χ^2 -검정으로 하였다.
- 마. 성 의식과 성 행동에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적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성 의식 지수

성 의식 지수를 보면 "성 폭행을 당했을 때는

표 II-3. 설문지 구성 내용

구성 지표	구성 내용	문항 수	문항 번호
성 의식	이성교제의 필요성, 성 충동억제, 자위행위, 애정표현, 혼전 성 관계, 결혼 후 외도, 성 폭행 신고 여부, 성 폭행에 대한 여성책임, 인공유산, 동성애	10	1~10
성 행동	음란물, 이성교제, 성 충동, 자위행위, 키스·애무, 성 경험,	22	11~32
개인적 사항	학교형태, 학년, 부모동거여부, 부모와의 관계, 경제적 수준, 학교성적, 친구 수	7	33~39

표 III-1. 의식 지수

N=976

성의식 지수	M±SD
중학생 때의 이성교제는 필요하다.	3.36± .96
성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	3.58± .98
자위행위는 성욕 발산을 위한 자연스러운 행위다.	2.87±1.01
공공장소에서도 애정의 표현(예 : 키스, 애무)을 할 수 있다.	2.84±1.11
사랑하는 사이라면 결혼 전에 성 관계를 해도 괜찮다.	2.37±1.11
결혼생활 중에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도 성 관계를 할 수 있다.	1.56± .85
성 폭행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4.36± .93
남성의 성 폭행은 피해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다.	2.83±1.30
결혼 전에 임신을 하면 결혼할 사람의 아이라고 해도 인공유산을 해야한다.	2.26±1.00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성의 한 표현이다.	2.24±1.20
전 체	2.83± .41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가 4.3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이 "성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로 3.58이고, "중학생 때의 이성교제는 필요하다"가 3.36으로 나타났으며 자위행위는 "성욕발산을 위한 자연스러운 행위다"가 2.87이고, "공공장소에서도 애정의 표현(예; 키스·애무)을 할 수 있다"가 2.84이며, "남성의 성 폭행은 피해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다"가 2.83이고, "사랑하는 사이라면 결혼 전에 성 관계를 해도 괜찮다"가 2.37이며, "결혼 전에 임신을 하면 결혼 할 사람의 아이라고 해도 인공유산을 해야 한다"가 2.26이고,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성의 한 표현이다"가 2.24이며, "결혼생활 중에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도 성 관계를 할 수 있다"가 1.5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 의식에 있어서 "성 폭행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결혼생활 중에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도 성 관계를 할 수 있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 폭행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과거에 수치심만을 생각하여 속으로만 고민하던 때와는 달리 올바른 성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결혼생활 중에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도 성 관계를 할 수 있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성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빈도분석

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구성은 남중이 335명(34.3%)이고, 여중이 324명(33.2%)이며 남·녀공학 남중이 181명(18.5%)이고 여중이 136명(13.9%)이다. 학교별 구성은 남·녀공학과 비공학으로 구분하여 남·녀공학은 317명(32.4%)으로 남중이 여중보다 약간 많았으며 남녀 공학이 여중보다 약간 적었다. 학년별 구성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332명(34.0%)으로 가장 많았고, 1학년 학생이 331명

(33.9%)으로 3학년 보다 약간 많았으며, 3학년 학생이 313명(32.1%)으로 1학년보다 약간 적었다. 가족형태는 부모님 모두와 동거하고 있는 학생이 (88.9%)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 또는 어머니하고만 생활하고 있는 학생이 (6.8%)이었으며, 재혼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학생이(2.7%)이었으며, 모두 안 계시거나 기타가(1.6%)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는 "만족한다"와 "매우만족 한다"가 (68.5%)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가 (22.6%)이었으며, "만족하지 않는다" 및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8.3%)로 나타났다. 경제 수준은 중(58.0%)로 가장 많았으며 중상(25.7%), 하(16.3%)로 나타났다. 학교성적별 구성은 상(28.5%) 중(57.2%) 하(14.3%)로 중이 가장 많았다. 친구의 수는 1~4명(39.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친구의 수는 5~7명(34.0%)이고 11명 이상(12.3%)이며 1~4명(39.8%)로 가장 많았다.

3. 성 행동 실태

음란물 접촉 경험이 있는 학생이 658명(67.4%)이고 접촉하지 않은 학생이 318명(32.6%)로 접촉 경험이 있는 학생이 많았다. 자주 접촉하는 음란 매체로는 pc(인터넷)이 551명(56.5%)이고, 영화가 35명(3.6%)이며, 기타가 30명(3.1%), 만화가 27명(2.8%), 비디오(1.5%) 순으로 인터넷 접촉이 가장 많은 것은 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인터넷 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음란물 접촉 후의 느낌으로는 "그저 그랬다"가 365명(37.4%)이고 음란물 접촉 후의 느낌은 "기분이 불쾌했다"가 126명(12.9%)이고, "너무 재미있어서 다시 보고 싶었다"가 73명(7.5%), "그대로 따라하고 싶었다"가 60명(6.1%), 기타가 34명(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 또는 경험 여부는 "없다"가 549명(56.3%)이며, "있다"가 427명(43.8%)로 "없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으로는 "상관하지 않음"이 353명(36.2%)

표 III-2. 개인적 특성

단위 : 명(%)

변 수	구 분	빈도(백분율)	계
학교형태	남중	335(34.3)	976(100)
	여중	324(33.2)	
	공학(남)	181(18.5)	
	공학(여)	136(13.9)	
학 년	중1	331(33.9)	976(100)
	중2	332(34.0)	
	중3	313(32.1)	
부모형태	친부모 모두	868(88.9)	976(100)
	아버지 또는 어머니 만	66(6.8)	
	재혼한 부모님과 함께	26(2.7)	
	모두 안 계시거나 기타	16(1.6)	
부모와의 관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6(2.7)	976(100)
	만족하지 않는다.	55(5.6)	
	그저 그렇다.	221(22.6)	
	만족한다.	343(35.1)	
	매우 만족한다.	326(33.4)	
	모두 안 계시거나 기타	5(.5)	
경제수준	상	54(5.5)	976(100)
	중상	197(20.2)	
	중	566(58.0)	
	중하	137(14.0)	
	하	22(2.3)	
학교성적	상	278(28.5)	976(100)
	중	558(57.2)	
	하	140(14.3)	
친구의 수	1명 이하	45(4.6)	976(100)
	2~4명	344(35.2)	
	5~7명	332(34.0)	
	8~10명	135(13.8)	
	11명 이상	120(12.3)	

표 III-3. 음란물 접촉 실태

단위 : (명)

변 수	구 분	빈도(백분율)	계
음란물 접촉 여부	없다.	318(32.6)	976(100)
	있다.	658(67.4)	
자주 접하는 음란매체	pc(인터넷)	551(56.5)	658(100)
	비디오	15(1.5)	
	영화	35(3.6)	
	만화	27(2.8)	
	기타	30(3.1)	
음란물 접촉 후의 느낌	기분이 불쾌했다.	126(12.9)	658(100)
	그대로 따라하고 싶었다.	60(6.1)	
	그저 그랬다.	365(37.4)	
	너무 재미있어 다시 보고 싶었다.	73(7.5)	
	기타	34(3.5)	

표 III-4. 이성교제 실태

단위 : 명(%)

변 수	구 분	빈도(백분율)	계
이성교제 또는 경험 여부	없다.	549(56.3)	976(100)
	있다.	427(43.8)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	찬성하신다.	334(34.2)	976(100)
	반대한다.	170(17.4)	
	상관하지 않으신다.	353(36.2)	
	기타	119(12.2)	
이성과의 신체접촉 정도	손잡기	283(29.0)	976(100)
	가벼운 뽀뽀	144(14.8)	
	껴안기	167(17.1)	
	키스	306(31.4)	
	육체적 성관계	34(3.5)	
	기타	42(4.3)	

표 III-5. 성충동을 느끼는 정도

단위 : 명(%)

변 수	구 분	빈도(백분율)	계
성 충동을 느끼는 정도	거의 느끼지 않는다.	206(21.1)	976(100)
	느낀다.	770(78.9)	
성 충동을 느끼는 경우	음란물을 보았을 때	286(29.3)	770(100)
	노출이 심한 사람을 보았을 때	126(12.9)	
	이성친구를 만났을 때	50(5.1)	
	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142(14.5)	
	혼자 성적 공상에 빠졌을 때	84(8.6)	
	기타	82(8.4)	
성 충동을 느끼는 경우 행동	그냥 참는다.	309(31.7)	770(100)
	운동 등 취미생활을 한다.	288(29.5)	
	자위행위를 한다.	63(6.5)	
	기타	110(11.3)	

"찬성"이 334명(34.2%) "반대"가 170명(17.4%) "기타"가 119명(12.2%)로 찬성 내지는 상관하지 않음이 (70.4%)로 대부분 자유 의사에 맡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성과의 신체접촉 정도는 "키스"가 306명(31.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손잡기"가 283명(29.0%) "껴안기"가 167명(17.1%) "가벼운 뽀뽀"가 144명(14.8%) "기타"가 42명(4.3%) "육체적 성 관계"가 34명(3.5%)로 많은

중학생들이 신체접촉의 경험이 있었으며, 이러한 성 행동은 부수적으로 부정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지도 할 필요가 있다.

성 충동을 느끼는 정도는 "느낀다"가 770명(78.9%)이며 "거의 느끼지 않는다"가 206명(21.1%)로 성 충동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충동을 느끼는 경우는 "음란물을 보았을 때"가 286명(29.3%) "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표 III-6. 자위행위 실태

단위 : (%)

변 수	구 분	빈도(백분율)	계
자위행위 경험	없다.	705(72.2)	976(100)
	있다.	271(27.8)	
자위행위를 경험한 시기	초등학교 이전	16(1.6)	271(100)
	초등학교	57(5.8)	
	중학교 1학년	134(13.7)	
	중학교 2학년	53(5.4)	
	중학교 3학년	5(.5)	
	기타	6(.6)	
자위행위 후 느낌	기분이 나빴다.	35(3.6)	271(100)
	죄를 지은 것 같았다.	50(5.1)	
	아무렇지도 않았다.	100(10.2)	
	기분이 좋았다.	86(8.8)	
	기타	0(0)	

표 III-7. 키스나 애무의 경험 실태

단위 : 명(%)

변 수	구 분	빈 도	계
키스나 애무 유무	없다.	801(82.1)	976(100.0)
	있다.	175(17.9)	
키스나 애무의 상대	이성 친구	119(74.4)	160(100.0)
	아는 사람	14(8.8)	
	우연히 만난 사람	8(5.0)	
	가족/친척	7(4.4)	
	기타	12(7.5)	

결측값

때"가 142명(14.5%)이며, "노출이 심한 사람을 보았을 때"가 126명(12.9%), "혼자 성적 공상에 빠졌을 때"가 84명(8.6%) "기타"가 82명(8.4%) "이성친구를 만났을 때"가 50명(5.1%)로 음란물을 보았을 때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성 충동을 느끼는 경우의 행동으로는 "그냥 참는다"가 309명(31.7%) "운동 등 취미생활을 한다"가 288명(29.5%) "기타"가 110명(11.3%) "자위행위를 한다"가 63명(6.5%)로 그냥 참는다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조원표(1993)는 남자 고교생이 성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은 "성 충동과 높은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고했다. 현주희(1993)의 이런 "성 충동을 느낄 때 학생들은 대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나,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자위행위

를 하면서 성 충동을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였다.

자위행위 실태로 자위행위 경험이 "없다"가 705명(72.2%)이고 "있다"가 271명(27.8%)로 자위행위 경험이 없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위행위를 경험한 시기로는 "중학교 1학년"이 134명(13.7%) "초등학교"가 57명(5.8%) "중학교 2학년"이 53명(5.4%) "초등학교 이전"이 16명(1.6%) "기타"가 6명(.6%) "중학교 3학년"이 5명(.5%)순으로 자위행위를 경험한 시기로는 "중학교 1학년"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위행위 후 느낌은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100명(10.2%) "기분이 좋았다"가 86명(8.8%) "죄를 지은 것 같았다"가 50명(5.1%) "기분이 나빴다"가

표 III-8. 성 행위 경험의 실태

단위 : 명(%)

변 수	구 분	빈도(백분율)	계
성 행위 유무	없다.	908(93.0)	976(100.0)
	있다.	68(7.0)	
첫 성 관계 대상	이성 친구	21(50.0)	42(100.0)
	아는 사람	4(9.5)	
	우연히 만난 사람	5(11.9)	
	가족/친척	2(4.8)	
	채팅으로 만난 사람	7(16.7)	
	기타	3(7.1)	
첫 성 관계 장소	자신의 집	8(19.5)	41(100.0)
	친구의 집	10(24.4)	
	여관	7(17.1)	
	야외나 공원	8(19.5)	
	비디오방	2(4.9)	
	노래방	2(4.9)	
첫 성관계 이유	상대방의 강요로	11(26.8)	41(100.0)
	성폭행으로	8(19.5)	
	원조교제	4(9.8)	
	사랑하기 때문에	7(17.1)	
	술이나 분위기 때문에	8(19.5)	
	기타	3(7.3)	
첫 성 관계 시기	초등학교 입학전	6(13.6)	44(100.0)
	초등학교 1~2학년	4(9.1)	
	초등학교 3~4학년	2(4.5)	
	초등학교 5~6학년	11(25.0)	
	중학교 1학년	13(29.5)	
	중학교 2학년	7(15.9)	
	중학교 3학년	1(2.3)	

35명(3.6%)로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스나 애무의 경험은 "없다"가 801명(82.1%) "있다"가 175명(17.9%)로 학생들이 키스나 애무의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스나 애무의 상대로는 "이성 친구"가 119명(74.4%) "아는 사람"이 14명(8.8%) "기타"가 12명(7.5%) "우연히 만난 사람"이 8명(5.0%) "가족/기타"가 7명(4.4%)로 이성 친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행위 경험은 "없다"가 908명(93.0%)이고 "있다"가 68명(7.0%)로 "없다"가 많이 나타났고 첫 성 관계 대상은 "이성 친구"가 21명(50.0%) "채팅으로 만난 사람"이 7명(16.7%) "우연히 만난 사람"이 5명(11.9%) "아는 사람"이 4명(9.5%) "기타"가 3명(7.1%) "가족/친척" 2명(4.8%)로 이성 친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 성 관계 장소는 "친구의 집"(24.4%)이 "자신의 집"이(19.5%) "야외나 공원"(19.5%)이 "여관"(17.1%)이 "기타"

(9.8%)가 "비디오방"(4.9%)이 "노래방"(4.9%)로 "친구의 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성 관계 이유는 "상대방의 강요"(26.8%)가 "성 폭행"(19.5%)이 "술이나 분위기 때문에"(19.5%)가 "사랑하기 때문에"(17.1%)가 "원조교제"(9.8%)가 "기타"(7.3%)로 "상대방의 강요에 의해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2학년"이 7명(15.9%) "초등학교 입학전"이 6명(13.6%) "초등학교 1~2학년"이 4명(9.1%) "초등학교 3~4학년"이 2명(4.5%) "중학교 3학년"이 1명(2.3%)로 "중학교 1학년"에서 첫 성 관계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성 관계 시기는 "중학교 1학년"이 13명(29.5%) "초등학교 5~6학년"이 11명(25.0%) "중학교 2학년"이 7명(15.9%) "초등학교 입학전"이 6명(13.6%) "초등학교 1~2학년"이 4명(9.1%) "초등학교 3~4학년"이 2명(4.5%) "중학교 3학년"이 1명(2.3%)로 "중학교 1학년"에서 첫 성 관계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개인적 특성에 따른 성 의식 및 성 행동의 관련성

성 의식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가 없다. 학년별 성 의식을 보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성 의식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고학년일수록 호기심과 관심이 더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유의수준 10%에서 다르게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유의수준 5%에서는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것은 학년이 높아 갈수록 성 의식은 증가하고 있으나 얻어진 자료가 이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지는 못한다. 학교유형별 성 의식을 보면 성 의식이 높은 것은 비 공학학생들이 305(46.3%)이며 남·녀공학 학생들이 137명(43.2%)으로 비 공학학생들이 남·녀공학 학생들 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서 남·녀공학 학생들은 이성을 자주 대하다 보니 비 공학 학생들 보다 이성을 잘 알고 또 이해하여 비 공학 학생들 보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 덜 나타난 것으로 본다.

성별에 따른 음란물 접촉에 대하여 고려하면, p값이 .001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1%에서 남중이 여중보다 음란물 접촉이 많이 접촉한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남중이 음란물 접촉에 있어서 더 적극적이고 기회도 많으므로 예견된 결과이다. 학년별 음란물 접촉은 유의수준 1%에서 다르다고 확신 할 수 있고 3학년이 227명(72.5%)이고 2학년이 229명(69.0%)이며 1학년이 202명(61.0%)로 3학년이 제일 많았고 2학년 1학년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고학년으로 갈수록 음란물접촉이 증

표 III-9. 성별, 학년별, 학교유형별에 따른 성 의식의 관련성

변수	분류	성의식		전체	x ²	p
		낮다	높다			
성별	남자	278(53.9)	238(46.1)	516(100.0)	.310	.578
	여자	256(55.7)	204(44.3)	460(100.0)		
전체		534(54.7)	442(45.3)	976(100.0)		
학년	1학년	197(59.5)	134(40.5)	331(100.0)	4.977	.083
	2학년	177(53.3)	155(46.7)	332(100.0)		
	3학년	160(51.1)	153(48.9)	313(100.0)		
전체		534(54.7)	442(45.3)	976(100.0)		
학교유형	비 공학	354(53.7)	305(46.3)	659(100.0)	.811	.368
	공학	180(56.8)	137(43.2)	317(100.0)		
전체		534(54.7)	442(45.3)	976(100.0)		

표 III-10. 성별, 학년별, 학교유형별에 따른 음란물 접촉 여부와 의 관련성

변수	분류	음란물 접촉 여부		전체	x ²	p
		없다	있다			
성별	남자	126(24.4)	390(75.6)	516(100.0)	33.214	.000***
	여자	192(41.7)	268(58.3)	460(100.0)		
전체		318(32.6)	658(67.4)	976(100.0)		
학년	1학년	129(39.0)	202(61.0)	331(100.0)	10.236	.006**
	2학년	103(31.0)	229(69.0)	332(100.0)		
	3학년	86(27.5)	227(72.5)	313(100.0)		
전체		318(12.6)	658(67.4)	976(100.0)		
학교유형	비공학	188(28.5)	471(71.5)	659(100.0)	15.180	.000***
	공학	130(41.0)	187(59.0)	317(100.0)		
전체		318(12.6)	658(67.4)	976(100.0)		

** p<.01

표 III-11. 성별, 학년별, 학교유형별에 따른 이성교제 경험과의 관련성

변수	분류	이성교제 경험		전체	x ²	p
		없다	있다			
성별	남자	292(56.6)	224(43.4)	516(100.0)	.051	.821
	여자	257(55.9)	203(44.1)	460(100.0)		
전체		549(56.3)	427(43.8)	976(100.0)		
학년	1학년	183(55.3)	148(44.7)	331(100.0)	1.649	.438
	2학년	196(59.0)	136(41.0)	332(100.0)		
	3학년	170(54.3)	143(45.7)	313(100.0)		
전체		549(56.3)	427(43.8)	976(100.0)		
학교유형	비공학	367(55.7)	292(44.3)	659(100.0)	.258	.611
	공학	182(57.4)	135(42.6)	317(100.0)		
전체		549(56.3)	427(43.8)	976(100.0)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성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러한 관심을 정상적인 방법과 교육이 충족 시켜주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일 수가 있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유의수준 1%이하에서 다르다고 판단된다. 비공학학생들이 471명(71.5%)이며 남·녀공학 학생들이 187명(59.0%)로 비공학학생들이 남·녀공학 학생들 보다 음란물 접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공학학생들은 남·녀공학 학생들 보다 학교생활에서 이성이 격리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성과의 접촉이 적을수록 음란물 접촉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성교제 경험은 성별, 학년별 및 학교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얻어진 자료에서는 여중이 203(44.1%)이고 남중이 224명(43.4%)로 여중이 남중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는 않다. 학년별로 보면 3학년이 143명(45.7%)이고 1학년이 148명(44.7%)이며 2학년이 136명(41.0%)로 3학년이 제일 많고, 1학년 2학년 순으로 나타났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는 않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비 공학학생들이 292명(44.3%)이고 남·녀 공학 학생들은 135명(43.2%)로 비 공학학생들이 남·녀공학 학생들 보다 이성교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적이지는 않다.

성 충동 여부를 성별로 보면 p값이 0.01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1%이하로 성별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이 자료에 의하면 성 충동은 성별에 차이가 있다고 99%신뢰할 수 있다. 특히 남중이 475명(92.1%)이고 여중이 295명(64.1%)로 남중이 여중 보다 성 충동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남중이 여중보다 성 충동에 대하여 민감하고 직접적인 반면에 여중은 아직도 감상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성 충동 여부를 학년별로 보면 유의수준 5%에서 학년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자료에 의하면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이 281명(84.6%)이고 1학년이 262명(79.2%)이며 3학년이 227명(72.5%)로, 2학년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1학년 3학년 순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과 1학년이 성 충동을 많이 느끼는 것은 많은 호기심

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3학년은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입시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시기이므로 1,2학년보다는 덜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충동 여부는 유의수준 5%에서 학교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비 공학 학생들이 533명(80.9%)이며 남·녀공학 학생들이 237명(74.8%)로 비 공학학생들이 남·녀공학 학생들 보다 성 충동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성에 호기심이 많은 때에 남·녀 공학 학생들은 이성과 가까이 생활하다보니 비 공학학생들 보다 성 충동이 덜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즉 이성을 멀리 생활하다 보니 비 공학학생들이 더 많이 성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학교유형과 성 충동과의 관계가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 자위행위경험은 유의수준 1%이하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에 의하면 남중이 224명(43.4%)이고 여중은 47명(10.2%)로 남중이 여중 보다 자위행위 경험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자위행위 경험은 유의수준 1%이하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에 의하면 2학년이 113명(34.0%)이고 3학년이 89명(28.4%)

표 III-12. 성별, 학년별, 학교유형별에 따른 성 충동 여부와와의 관련성

변수	분류	성 충동 여부		전체	x ²	p
		거의 느끼지 않는다	느낀다			
성별	남자	41(7.9)	475(92.1)	516(100.0)	113.880	.000**
	여자	165(35.9)	295(64.1)	460(100.0)		
전체		206(21.1)	770(78.9)	976(100.0)		
학년	1학년	69(20.8)	262(79.2)	331(100.0)	14.220	.001***
	2학년	51(15.4)	281(84.6)	332(100.0)		
	3학년	86(27.5)	227(72.5)	313(100.0)		
전체		206(21.1)	770(78.9)	976(100.0)		
학교유형	비 공학	126(19.1)	533(80.9)	659(100.0)	4.809	.028*
	공학	80(25.2)	237(74.8)	317(100.0)		
전체		206(21.1)	770(78.9)	976(100.0)		

* p<.05, ** p<.01, *** p<.001

표 III-13. 성별, 학년별, 학교유형별에 따른 자위행위 경험과의 관련성

변수	분류	자위행위경험		전체	x ²	p
		없다	있다			
성별	남자	292(56.6)	224(43.4)	516(100.0)	133.599	.000***
	여자	413(89.8)	47(10.2)	460(100.0)		
전체		705(72.2)	271(27.8)	976(100.0)		
학년	1학년	262(79.2)	69(20.8)	331(100.0)	14.481	.001***
	2학년	219(66.0)	113(34.0)	332(100.0)		
	3학년	224(71.6)	89(28.4)	313(100.0)		
전체		705(72.2)	271(27.8)	976(100.0)		
학교유형	비공학	454(68.9)	205(31.1)	659(100.0)	11.294	.001***
	공학	251(79.2)	66(20.8)	317(100.0)		
전체		705(72.2)	271(27.8)	976(100.0)		

** p<.01

표 III-14. 성별, 학년별, 학교유형별에 따른 키스·애무 경험과의 관련성

변수	분류	키스·애무경험		전체	x ²	p
		없다	있다			
성별	남자	415(80.4)	101(19.6)	516(100.0)	2.009	.156
	여자	386(83.9)	74(16.1)	460(100.0)		
전체		801(82.1)	175(17.9)	976(100.0)		
학년	1학년	280(84.6)	51(15.4)	331(100.0)	2.224	.329
	2학년	267(80.4)	65(19.6)	332(100.0)		
	3학년	254(81.2)	59(18.8)	313(100.0)		
전체		801(82.1)	175(17.9)	976(100.0)		
학교유형	비공학	542(82.2)	117(17.8)	659(100.0)	.043	.836
	공학	259(81.7)	58(18.3)	317(100.0)		
전체		801(82.1)	175(17.9)	976(100.0)		

이며, 1학년이 69명(20.8%)로 2학년이 자위행위 경험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3학년 1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 자위행위 경험을 보면 유의수준 1%이하로 "학교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비 공학학생들이 205명(31.1%)이며 남·녀공학 학생들이 66명(20.8%)로 비 공학학생들이 남·녀공학 학생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을 자주 접하지 않는 학생들이 "자위행위에 대한 경험이 많다"는 것으로

자주 접하지 않는 학생들이 더 자위행위와 성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학교유형이 자위행위와 성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 키스·애무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이것은 성 표현을 실현시키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자료에 의하면 남중이 101명(19.6%)이고 여중이 74명(16.1%)로 남중이 여중보다 키스·애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키스·애무 경험은 2학년이 65명(19.6%)

이고 3학년이 59명(18.8%)이며 1학년이 51명(15.4%)로 2학년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3학년 1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 키스·애무 경험은 비 공학학생이 117명(17.8%)이며 남·녀공학 학생이 58명(18.3%)로 남·녀공학 학생이 비 공학학생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중학생들의 성 의식과 성 행동에 관련된 실태를 성별, 학년별, 학교유형별로 세 집단간 차이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성 윤리 확립을 위한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성 교육 방향을 설정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내 3개 중학교 976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를 기초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빈도분석 기초 통계분석 X^2 -검정 및 상관분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 중학생의 성 의식의 정도는 어떠한가?

성 의식지수는 "성 폭행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결혼생활 중에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도 성 관계를 할 수 있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분영(2002)의 연구 결과와 같이 "성 폭행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 '그렇다'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결혼 전에 임신을 하면 결혼 할 사람의 아이라고 해도 인공유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는 '그렇다'가 상당히 낮게 조사되었고 "결혼생활 중에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도 성 관계를 할 수 있다"가 다음으로 낮게 조사된 것과 일치한다.

"성 폭행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가 높게 나타난 것은 과거의 수치심때문에 신

고를 두려워하던 때의 생각이 성 교육으로 인해 올바른 생각으로 바뀐 것으로 판단되며 "결혼생활 중에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도 성 관계를 할 수 있다"와 "결혼 전에 임신을 하면 결혼 할 사람의 아이라고 해도 인공유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가 낮게 나타났지만 성 교육을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나. 중학생의 성 행동의 실태는 어떠한가?

성 행동 실태로 음란물접촉 경험이 있는 학생이 많았고, 인터넷 사용이 가장 많았다. 이계화(1998)의 성 정보의 범람은 성의 자극과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하게 되었고, 또한 청소년으로 하여금 왜곡된 성에 대한 지식으로 인한 성 고민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게 하였다는 연구결과와 같이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 성별, 학년별, 학교유형에 따른 성 의식과 성 행동은 관련성이 있는가?

성별 학년별 학교유형별에 따른 성 의식의 관련성에서 성별의 차이가 없었고 3학년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분영(2002)의 연구에서는 남중이 성 의식이 높은점이 다르게 나타났고 나머지는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행동의 관련성에서 음란물 접촉은 성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남중이 여중보다 많았다. 학년별로 보면 매우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고 특히 3학년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유형별로도 매우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비 공학학생이 남·녀공학 학생보다 많았다.

이성교제는 성별 학년별 및 학교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성 충동에 관해서는 성별과 학년별로 매우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중이 여중보다 대단히 많았고 학년별로는 2학년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유형별로는 비 공학학생이 남·녀공학 학생

보다 많았다. 자위행위 경험은 성별, 학년별 및 학교유형별로 매우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중이 여중보다 4배 이상 많았고, 학년별로는 2학년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유형별로는 비 공학학생이 남·녀공학 학생 보다 많았다. 키스·애무 경험을 성별로 보면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학년별로는 3학년은 성 의식 음란물 접촉이 가장 많았고 2학년은 성 충동 자위행위 키스·애무가 많았으며 이성교제 경험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박종수(1998)의 연구에서 중학교 학생들의 성 문제 고민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남·여 모두 이성교제의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비율이 가장 높았고 학년별로 보면, 2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학교유형별로는 비 공학학생이 남·녀공학 학생 보다 성 의식 음란물 접촉 성충동 자위행위가 많았고 키스·애무는 남·녀공학 학생이 비 공학 학생보다 많이 나타났으며 이성교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분영(2002)의 연구에서는 비 공학학생이 이성교제가 많았고 자위행위와 음란물 접촉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이 다르게 나타났고 나머지는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 의식은 성별과 학교유형별의 차이는 없었고 학년별 차이는 나타나고 있으며 3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 행동의 관련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음란물 접촉은 남중이 높게 나타났고 학년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3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유형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비 공학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 학년별 및 학교유형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성 충동의 관련성은 자위행위 경험은 성별, 학년별 및 학교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남중이 여중에 비하여 4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2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비 공학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2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비 공학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키스·애무 이성교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동열(2000)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성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인간의 본능, 아름다운것, 즐거움을 얻는 방법, 추악한것의 순으로 나타나 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성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건강하게 나타났다."고 한 결과와 같이 자연스러운 성 교육으로 남·녀 공학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제언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중학생의 성 의식 및 성 행동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부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대상범위를 확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표현 자체가 억압되어 있고 학교현장의 협조를 얻어 학교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의 답변에 의문이 있어 보다 정확하고 자료수집 방법을 달리한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이 연구는 성 의식 및 성 행동에 대한 단면적인 실태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성 의식과 성 행동과의 전후 관계를 심층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중학생들의 성 의식 및 성 행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토대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구분영(2002). 남녀공학과 비공학 중학생의

- 성의식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김면수(1999). 성역할 정체감과 가치관과의 관계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 김성태(1984). 발달 심리학. 서울 : 학문사.
 4. 김상원, 이명숙(2000). 중학생의 성 의식조사 및 성 교육자료집 개발 연구.
 5. 김수련(1997).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실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보건 교육 석사학위 논문.
 6. 문휴자(1986). 미디어의 성역할 의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박영수(1998). 학교보건학. 서울 : 신광출판사.
 8. 박종수(1998). 중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서울YMCA(1996). 청소년 성교육 교사강습회 자료집. 서울 YMCA청소년상담실.
 10. 설영환(1990). 프로이드 심리학 해설. 서울 : 선영.
 11. 신동열(2000). 고교생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심영희(1992).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서울 : 나남.
 13. 안영자(1987). 중학교 남녀공학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양성숙(1992). 청소년의 성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 오치선 외(1999). 청소년 지도학. 서울 : 학지사.
 16. 오현미(2002). 고등학생의 성 의식과 성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7. 이계화(1988). 중고등학생의 성문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 이금명(1997). 성교육 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 이승희(1991). 중학생의 성교육에 관한 일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 이영숙(1995). 청소년 이성교제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1. 이정호(1999). 중학생의 성형태의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이흥구(1975). 교육사회학. 서울 : 재대동문회사.
 23. 이해연(2002). 초등학생들의 성의식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 이현숙(1993). 중학생의 성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25. 조양순(1998). 비행 청소년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6. 조원표(1991). 고교생의 성고민과 요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7. 조정숙(1980). 고교생들의 성교육 필요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28. 하재청외 3인(1992). 성의 과학. 서울 : 아카데미 서적.
 29. 현주외(1993).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읽기 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
 30. Corsini, R. J.(ED.)(1994). Encyclopedia of psychology. 2nd Edition, N.Y. : John Wiley & Sons.
 31. Hayes, Laurie L.(1998). Sex offenders are not always male. *Counseling Today*, 40(7). ACA, PP.6~22.
 32. Michale A. Carrela and Mary S. Calderone(1983). The SIESUS/New York University principle Basic to Education for sexuality, J.O.S.H. Vol.53.
 33. S. Freud (1905). Ther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 New York, Basic Books.